

머리 생각의 무능은 파멸을 가져온다

성경말씀: 빌4:8-9

성경에는 위대한 구절이 많다. 요3:16, 롬8:28, 구원 이후 성화 필수

성화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성령님의 내주, 성경 읽기, 그러나 생각이 없이는 고도의 성화 불가능
롬12:2,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mind, 아무리 음식이 풍부해도 먹을 마음이 없으면 무용지물
어떻게 생각의 변화를 받는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깊게 생각해야 한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준다(4:8).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하는 기능, 이를 위해 머리를 주셨다.

머리의 기능: 생각하는 것,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이 450회가 나온다. 심히 중요하다.

개인, 교회, 국가의 흥망성쇠가 생각에 달려 있다. < > 무능 극복,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뇌와 생각

뇌 연구: 1400그램, 140억 개 신경 세포, 수많은 정보들, 컴퓨터가 따라갈 수 없다. 결국 생각
몸무게의 2.5%, 뇌에 흐르는 피의 양은 15%, 칼로리를 뇌에서 많이 소모한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의 절정, 그리스도의 생각(빌2:5, 고전2:16)

사람의 작품인 어떤 컴퓨터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없다.

성화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 거기에 다가가면 갈수록 성화의 깊이 증대(잠4:23, 막12:30)
생각의 기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짚 수 없다. 생각이 흥망성쇠 결정
그러므로 항상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한다(고후10:5).

바울의 주문

이 구절이 나오는 배경, 먼저 6-7,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성도의 경우 죄를 지으면 불안이 생긴다. 불신자의 경우 양심이 인두로 지저졌으면 불가능

순수함을 유지하면 화평(사32:17), 생각을 고정한 자는 화평(사26:3, 약3:17)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감정과 행동 유발, 결국 우리를 붕괴시킨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가?

1. 진실한 것: 무엇인 참인가? 사람은 아니다. true, 유일하게 true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롬3:4)
예수님의 말씀(요14:6),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진리만을 가르친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다(요일5:6).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요8:44),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킨다(고후11:3).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결국 파멸로 이끈다(창3).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무엇인 진리인가? 1. 하나님이 계신다(그냥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창조된 존재, 창조자가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에는 잘 안 넘어간다. 크면 클수록 넘어간다. 진화론: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다”. “종이 바뀐다”

2,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3.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 길은 유일한다. 4.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5. 하나님이 이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창조 세상과 양심). 6. 오직 성경만
진리이다. 7. 기독교만 진리이다. 왜?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2*2=4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반드시 진실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생활 영역 전체에서
지금 이 나라는 혼돈의 도가니 속에 들어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5:20(악을 선하다 악을 선하다) 렘5:1-2, 진리가 실종되었다. 심지어 성도/목사들마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라. 탄핵으로 몰고 간 태블릿 PC 등 거의 다 가짜 뉴스, 무관심
프리덤뉴스 이상로 <진신리 편에 서게 해 주신 신께 감사한다>

목사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무엇이든 참된 것을 생각해야 한다.

2. 정직한 것, 일꾼의 가장 큰 특징, 정직한 링컨(행6의 7집사 요건)

3. 의로운 것: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 성도는 의로워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 발언, 김정은 오면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를 갖추어 환영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 기독교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 무조건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개인 영역 실천 노력 그러나 국가는 그리할 수 없다. 국가는 적을 살피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무력으로 섬멸해야 한다.

이 나라 혼돈의 원인 북한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마귀 체제, 섬멸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악에 동조하는 사람이 된다.

목사와 교회가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력 석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4. 순수한 것

도덕적 순결, 특별히 성적 순결, 동성애는 더러운 것(엡4:17-24; 5:8-12)

5. 사랑스러운 것: 음악, 영화, 책, 옷, 말 등

6. 좋은 평판이 있는 것: 추천할만한 일들, 그러므로 성도는 고상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7. 결론: 무엇이든 덕과 칭찬이 있는 것

덕이 있는 것: 우리도 해야겠다. 칭찬이 있는 것: 남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일,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일 등에 생각과 시간을 쓰면 안 된다.

성도는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의 갈등, 2절의 유오디아와 순두게 시19:7-9, 시119:165

생각의 무능은 멸망을 가져온다.

카이트 교수님이 보내 준 글, ♡ 생각이 무능한 자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특별 법정에서 유명한 재판이 열렸다.

피고는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Otto Adolf Eichmann)이었다. 아이히만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친위대의 정예로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 즉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는 유럽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시키는 임무를 맡았었으며, 자신이 무려 500만 명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이동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재판 소식을 듣고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날아간 사람이 있다. 한나 아렌트였다. 유대인이었던 그녀는 나치의 탄압에 의해 갖은 고생을 하다 미국에 자리를 잡았고, 정치철학자로서 인정받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집필 활동을 통해 전체주의를 맹렬히 비판해오던 그녀는 아이히만의 소식을 듣고 뉴욕커 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전범재판에 참관하게 된다.

악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을 기대했던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그녀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인물이 피고석에 앉아있었던 것이다.

아이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아니 평범함 그 이상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부하들에게 친절한 상사로 알려져 있었고,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칸트의 의무론을 인용하여 자신을 변호할 만큼 지적 교양을 갖춘 이였다.

그의 정신 상태를 분석한 정신과 의사들은, "이 사람은 나보다도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아이히만이 "정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정했다.

아이히만에게는 심지어 유대인 친구들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와 내 친구들 중 유대인을 미워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는 단지 명령 받은 일을 성실히 실행했을 뿐이다." 어째서 그러한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의지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자신의 의지로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였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테지만, 이는 상관의 명령이었고,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공직자의 서약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의무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을 받든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은, 국제적 관심 속에 7개월 동안 이어졌고, 결국 1962년 5월 31일, 아이히만에게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마무리된다.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그녀가 관찰한 아이히만의 모습을 담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역작을 탄생시킨다.

한나 아렌트는, 이 책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그녀가 관찰한 것에 대해 서술한다.

아이히만은 파괴적인 사상에 젖어있는 악마적 나치 광신도가 아니었다. 우리 모두와 같은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들은, 정신병자나 미치광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등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순응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선악구분이 무뎠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히만은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 파시즘의 광기로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은 생각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누구나 거대한 악을 행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무려 5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낸 아이히만의 끔찍한 행위는 그의 내면에 있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은 ‘생각의 무능’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다. 다시 말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려는 의지를 잃는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속에서, 집단 속에서, 군중 속에서 거대한 여론이라는 타성에 젖어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멈춘 사람들이 많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실제 사건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모두가 욕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크게 걱정할 병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온 사회가 공유하는 미신적 공포에 더욱 신뢰를 가지는 사람들.

기억하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만든 것은 그 어떤 특별한 악이 아닌, ‘생각의 무능’이었다.

생각의 무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다.

북한을 찬양하는 너무나 많은 생각의 무능한 자들.

위 역사의 교훈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을 가져 오는지를

모르는, 대한민국의 중북 세력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일 것이다.

Brain이 있고 thinking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이 혼란한 세상을 버티며 살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부조리를 곰곰이 생각해서 버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는가?

9절, 이미 바울은 이것들을 가르쳤다(9). 기독교는 총체적 진리, 어디에 있는가? 딤후3:16-17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생각하지 못해서 못한다.

9절에는 4가지 행위가 있다.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한다.

배우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바울의 삶의 특징: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았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진리가 보였다.

듣고 행해야 한다(약1:22).

하나님의 화평(골3:15)은 생각하는 자들에게만 거한다. 총체적 진리를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과 교회와 국가에만 화평이 있다(시101:2-3).

주님의 경고(마5:29), 악한 것을 거부해야 한다.

결론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으면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이 된다. 생각의 무능은 파멸을 가져온다. 생각해서 진실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루 3장이면 일 년에 한 번

이번 주에는 빌4:8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빌4:9)